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83호 [루게 제23035호] 주제 99 (2010)년 3월 24일 (수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원군사업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원군사업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보내시였다.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인민봉사충구 물결기차제공급수 일군들과 종업원들, 국가과학원 산하단위 연구사각경원, 철산군 리화리 농공명부위원장한영애, 북창군 옥천로동자구 조급너맹위원장 김순애, 인민문화궁전 직맹조급단체위원장 리정숙, 렬포구역 대현동 너맹조급단체 위원장 현복순, 봉천군 송정리 너맹조급단체 위원장 리정현, 은과군 갈현리 농공명원 최수녀, 사동구역 두루 2동 너맹원 리선옥, 벽성군 통산리 너맹원 박선옥을 비롯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조국보위초소와 강성대국건설장에서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용을 떨쳐가고있는 인민군인들을 성심성의껏 원호하였으며 영예군인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듯이 돌봐주는 아름다운 소행을 발휘하였다. 사동구역 종합식당 종업원들과 중앙식물원 파장 김세왕, 로동자 리영춘, 철도성병원의 의사 윤정옥, 황해남도산원 의사 강해봉, 청천강화력발전소 부원 신희갑, 무역성 산하단위 로동자 허희숙, 대성지도국 산하단위 로동자 송희, 송남청년단 평양영양제식당 책임자 김영숙, 만포시 로동자 로동자 리정현은 여러차례에 걸쳐 618건설돌격대원들에게 많은 지원물자를 보내주어 그들이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에 넘쳐 맡겨진 공사과제를 성과적으

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산소분리기생산에 이바지할 일념안고 신의주시사회급양관리소 종업원들과 평안북도수강소 및 학생담사결학소 지도교원 한철호, 평안북도위생방역소 의사 김경옥, 신의주시원림사업소 역전사관 책임자 김창남, 신의주의대학 학생 리성심, 신의주시 역전동 4인민반 회장남은 학원로동자회의 로력투쟁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원군사업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좋은 일을 더 잘해 나갈 결의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감보자인민당 중앙위원회 지도부성원들이 선물을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감보자인민당 중앙위원회 지도부성원들인 혼센 감보자장군 정부 수상, 제야 심상연의 장, 행 삼국회의장이 공동명의로 된

선물을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어온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감보자조선친선의원단 위원장 싸움 쟈이

2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부 최고인민회의 의장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걸출한 령도자

태양절 기념 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태양절기념행사가 9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진행되었다. 집회장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철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집회장에 전시되어있었다. 집회에는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 칼레비 외르만을 비롯한 경제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에 꽃다발을 증정하고 경의를 표시하였다. 집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은 김정일동지는 조국과 인민, 세계혁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친 열렬한 애국가, 참다운 혁명가의 귀감이시라고 높이 칭송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사주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인민들과 사회주의운동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는 귀중한 지침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정일동지의 주체사상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공부하시키시였으며 선군의 위력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물리치면서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집회에는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 칼레비 외르만을 비롯한 경제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에 꽃다발을 증정하고 경의를 표시하였다. 집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은 김정일동지는 조국과 인민, 세계혁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친 열렬한 애국가, 참다운 혁명가의 귀감이시라고 높이 칭송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사주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인민들과 사회주의운동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는 귀중한

지침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정일동지의 주체사상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공부하시키시였으며 선군의 위력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물리치면서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집회에는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 칼레비 외르만을 비롯한 경제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에 꽃다발을 증정하고 경의를 표시하였다. 집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은 김정일동지는 조국과 인민, 세계혁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친 열렬한 애국가, 참다운 혁명가의 귀감이시라고 높이 칭송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사주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인민들과 사회주의운동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는 귀중한

에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 강위력한 사회주의 국가를 일떠세우신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동지는 렬사가 일제거 없지 못한 위대한 인간이며 조선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신 세계 공인하는 탁월한 사상가, 학제대 두 제국주의를 타도하신 백전백승의 강령의 명장이다. 오늘 조선인민은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은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며 이께서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걸출한 령도자로서 영연히 인류와 함께 계실것이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김정일동지의 위업이 빛나게 실현되기를 축원한다. 영화강상회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 《강성대국의 불보라》가 상영되었다. **본사기자**

불라는 애국의 열정과 대담한 창조정신으로 더 높이, 더 빨리!

철도운수부문에서 증송의 불길 라오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철도운수부문의 로동계급은 나라의 동맥을 지켜선 초맹으로서의 높은 책임감을 지니고 수송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합니다.》

이들은 현실조건에 맞게 배차조치를 더욱 짜고드는 한편 역점의 긴밀한 연계밑에 기관차와 화차들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장악하여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게 하고있다. 이와 함께 중요물동수송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성장과 결실을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 나가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면서 수송전사들을 증송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고 있다.

당창건 65돐을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한마음으로 두들기게 도우며 증송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는 철도국인들과 수송전사들의 불같은 열의에 의하여 수송성과는 더욱 확대되고있다. **강명근**

고있다. 분국에서는 기관차와 화차들의 보수에 필요한 자재들과 부속품들을 해결해주어 기관차의 실행물과 화차의 리용률을 높이고자 함으로써 수송에서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 분국의 기관차승무원들은 당창건 65돐을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한마음으로 자전적수행정성으로 진행하면서 무사고정시운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최현철**

대고조절투쟁의 새 소식

뜨락또르부속품생산성과 확대

금성뜨락또르부속품생산성과 확대

을 자신들이 안아온다는 각오를 안고 가공부문의 로동계급도 기세를 올리고있다. 치차작업반원들이 기대공들은 부속품생산량의 절반이상의 몫을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분발하고있다. 직장 일군들은 공장합모부의 긴밀한 연계밑에 공구보장대책을 따라세우면서 교대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있다. 대지차, 속지차작업반원들이 기대공들의 도움을 높이 실적을 올리고있으며 원주차작업반원들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지치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본사기자 리병준**

청진철도국에서

부리 대오의 앞장에서 이신작적의 혁명적기풍으로 국안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을 증송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고 있다. 철도국의 일군들은 선진적장련합기업소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북부지구 단련으로 중요물동을 실은 집중수송열차들을 떠나보낼 때마다 기관차에 함께 올라 승무원들의 투쟁을 고무추동하고있다. **본사기자 리병준**

이들은 현실조건에 맞게 배차조치를 더욱 짜고드는 한편 역점의 긴밀한 연계밑에 기관차와 화차들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장악하여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게 하고있다. 이와 함께 중요물동수송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성장과 결실을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 나가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면서 수송전사들을 증송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고 있다. **강명근**

당창건 65돐을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한마음으로 두들기게 도우며 증송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는 철도국인들과 수송전사들의 불같은 열의에 의하여 수송성과는 더욱 확대되고있다. **강명근**

강계철도분국에서

공동사실과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강계철도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당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일떠서는 최첨발전진건설에 필요한 물동수송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분국에서는 증송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지난해에 수십t의 물동을 발전소건설장으로 보내준데 이어 올해 1.4분기기간에도 많은 물동을 수송하고 있다. **본사기자 리병준**

이들은 현실조건에 맞게 배차조치를 더욱 짜고드는 한편 역점의 긴밀한 연계밑에 기관차와 화차들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장악하여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게 하고있다. 이와 함께 중요물동수송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성장과 결실을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 나가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면서 수송전사들을 증송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고 있다. **강명근**

당창건 65돐을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한마음으로 두들기게 도우며 증송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는 철도국인들과 수송전사들의 불같은 열의에 의하여 수송성과는 더욱 확대되고있다. **강명근**

레성강 6호발전소건설 적극 추진

레성강 6호발전소건설장에서 혁신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당창건 65돐을 김정일민족의 렬사가 특기할 혁명적대장사로 빛내일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펼쳐나선 황해남도과 배천군의 일군들, 청년돌격대원들과 근로자들이 발전소건설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단 목표를 내건 다음에는 오를쫓아가지 말고 그것을 대담하고 패기있게 내밀어 끝까지 해쳐야 합니다.》

이들은 현실조건에 맞게 배차조치를 더욱 짜고드는 한편 역점의 긴밀한 연계밑에 기관차와 화차들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장악하여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게 하고있다. 이와 함께 중요물동수송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성장과 결실을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 나가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면서 수송전사들을 증송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고 있다. **강명근**

당창건 65돐을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한마음으로 두들기게 도우며 증송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는 철도국인들과 수송전사들의 불같은 열의에 의하여 수송성과는 더욱 확대되고있다. **강명근**

레성강 6호발전소건설장에서 혁신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당창건 65돐을 김정일민족의 렬사가 특기할 혁명적대장사로 빛내일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펼쳐나선 황해남도과 배천군의 일군들, 청년돌격대원들과 근로자들이 발전소건설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단 목표를 내건 다음에는 오를쫓아가지 말고 그것을 대담하고 패기있게 내밀어 끝까지 해쳐야 합니다.》 레성강 6호발전소건설은 연백의 농업생산과 배천군의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전력을 보다 원만히 보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 불라는 애국의 일념으로 생산을 다그치고있다. -사리원 방직공장에서-

필요한 전력을 보다 원만히 보충하는 데 기여하였다. 당창건 65돐을 김정일민족의 렬사가 특기할 혁명적대장사로 빛내일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펼쳐나선 황해남도과 배천군의 일군들, 청년돌격대원들과 근로자들이 발전소건설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단 목표를 내건 다음에는 오를쫓아가지 말고 그것을 대담하고 패기있게 내밀어 끝까지 해쳐야 합니다.》 레성강 6호발전소건설은 연백의 농업생산과 배천군의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전력을 보다 원만히 보충하는 데 기여하였다. 당창건 65돐을 김정일민족의 렬사가 특기할 혁명적대장사로 빛내일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펼쳐나선 황해남도과 배천군의 일군들, 청년돌격대원들과 근로자들이 발전소건설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단 목표를 내건 다음에는 오를쫓아가지 말고 그것을 대담하고 패기있게 내밀어 끝까지 해쳐야 합니다.》 레성강 6호발전소건설은 연백의 농업생산과 배천군의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전력을 보다 원만히 보충하는 데 기여하였다. **본사기자 리병준**

